

연총, 9명 54주 개근상 성모님의 군단 행동단원과 협조단원 한자리에



시흥4동 성당 신심생활분과 소속 성모 승천 꾸리아는 지난 12월 9일(주일) 그리스도왕 홀에서 레지오 간부와 단원 그리고 협조단원들 총 12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연차 총 친목회를 가졌다.

이날 연차 총 친목회는 1부 나눔과 대화의 자리, 2부 시작기도와 출석 개근자 수상식, 3부 위대한 기적 영상물 관람과 제4부 마침기도로 연차 총 친목회가 이어졌다.

제1부 나눔의 자리에서는 중식으로 소머리국밥과 음료, 다과를 나누면서 행동단원과 협조단원들이 대화의 한자리에 모여 성모님의 기본정신인 '순종과 인내, 사랑의 봉사적 희생정신' 과 불꽃같은 용맹심으로 일선에서 악의 무리와 싸우는 행동단원들이 있는가 하면

후방에서 협조단원들은 행동단원들이 용맹심을 떨칠 수 있도록 성모님께 매일 드리는 청원기도가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계기가 되었다.

유병옥(마르치아노) 꾸리아 단장 주송으로 시작기도와 영광의 신비의 4단만 바치고 이어 연간 개근상을 주임신부님께서 수여와 축복을 하셨다.

출석 개근상 수상자, 유병옥(마르치아노) 김금례(글라라) 고효숙(안나) 안혜람(체칠리아) 유순균(벨라벳다) 임종선(체칠리아) 주송노(루치아) 송옥동(로마나) 박문자(루치아) 9명에게 상장과 약간의 금일봉이 수여되었다.

제3부로 영상물 "위대한 기적" 관람 후 까페나와 마침기도로 2018년 성모 승천 꾸리아 연차 총 친목회를 4부로 나누어 마쳤다.



성체분배자는 사제의 제전을 도와주는 주님의 축복받은 평신도



본당 전례분과 소속 성체분배단은 12월9일 오전 10시 2층 마태오실에서 성체분배단 총 11명중 9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장 이광철 안드레아의 시작기도와 월중 성찬의 전례 성체분배 일정 계획을 세웠다.

특히 거룩한 예수님의 성체분배권을 사제로부터 위임받아 교우들에게 나누어 주는 성체분배단은 대림시기 성탄 전야제와 성탄 대축일, 내년 1월1일 화요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과 1월 6일 주님 공현 대축일에 성체분배자의 명단을 확인하고 분배자 개인사정으로 유고시 이에 대처하는 계획을 세우고 마침기도로 성체분배자 월례회의를 마쳤다.

